



* 등급정보 (닭고기) *

▷ 21개 업체에서 생산한 435만8천수에 대한 등급판정 실시결과, 1*등급은 190만8천수(43.8%), 1등급은 245만수(56.2%)를 차지, 전월대비 188만8천수(76.4%) 증가, 전년동기(20개 업체, 302만6천수)대비 44.0%(133만2천수) 증가, 근월누계는 944만3천수로 전년동기 누계대비 286만6천수(43.6%) 증가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품질등급별 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10년 1~3월	9,443,056	3,582,399	5,783,557	77,100
	(100.0)	(37.9)	(61.2)	(0.8)
'10년 2월	2,470,452	777,901	1,691,551	1,000
	(100.0)	(31.5)	(68.5)	(0.0)
'10년 3월	4,358,184	1,908,023	2,450,161	-
	(100.0)	(43.8)	(56.2)	(0.0)

주) 2007.3.26일부터 닭고기 등급판정 제개

* 축산뉴스 (닭고기) *

‡ 4월 육계가격 2천3백원 전망

4월 육계가격이 생산성 저하 및 수요증가에 따라 kg당 2천100~2천3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 따르면 병아리 생산량 증가에 따라 4월 육계 사육수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7천867만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4천853만수로 추정되고 있는 3월 병아리 생산량이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겨울철 한파 등의 영향으로 육계생산성이 극히 저조, 4월 도계수수는 전년 보다 1.2% 감소한 5천437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4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늘어난 5천톤에 달하며 닭고기 총공급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행락철을 맞이해 닭고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아리가격 강세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인해 4월 육계산자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00~200원 정도 높은 2천100~2천300원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등으로 지난해 가구당 평균 구매량이 전년보다 5.4% 늘어난 1.78kg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계업체 1분기 실적 기대감 지속 상승

하림·마니커·동우 등 국내 육계업체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높다. 한 애널리스트는 지난 3월 24일 "육계 가격, 원가 수요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에 올해도 육계업체의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3개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6%p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개사의 실적 합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년대비 각각 13.0%, 87.4% 상승한 2천604억원, 237억원으로 추정했다. 3월 기준 국내 육계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천500원을 상회한 상황, 육계가격 상승은 국내 육계 재고 감소 및 육계 생산성 저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애널리스트는 "육계가격은 4월 이후 외부요인 개선에 따른 종계 및 육계 생산성 향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오는 6월 월드캡득수, 7월 이후 복날로 인한 자체 성수 시즌 진입, 8월 배달용 치킨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등 국내 육계 수요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해 성수 시즌까지 평균 1천900원 이하로 하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